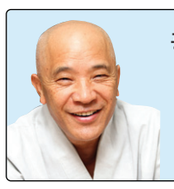

광주 원각사 회주 현고 스님
사회 소통위한 승가 변화
'부처불교' 평생 숙제
16·17면


#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4월 27일) · 주간

제943호 2013년 6월 5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대품반야경〉

사람은 깨끗하고 더러움에 차별을 둔다
사물의 본성은 깨끗함도 더러움도 없다
편견을 떠나면 모든 존재는 깨끗하다

# 근대 선지식 저서 '세계 속으로'

## 조계종 28일 영역 편찬위 설치 규정 공포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근현대 대표적 불교 저작들을 선별해 영역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조계종은 5월 28일 열린 제28차 종무회의에서 '근대 한국불교 대표 문헌 영역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근대 한국불교 대표 문헌 영역 편찬위원회(이하 영역 편찬위)는 총무원장 직속 기관으로 교육원이 업무를 위임하며, 근대 한국불교의 대표 문헌의 영역과 번역 대상 문헌 조사, 번역 출판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한다.

총무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게 되며, 교육부장 · 기획실장 · 불학연구소장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위원들은 총무원장이 위촉할 수 있게 했다.

영역 편찬위에는 별도로 운영위원회와 기획편집위원회를 구성해 행정과 번역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획편집위원회에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해 번역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故 지관 스님의 총무원장 당시 한국 대표 고승들의 저술들을 엮은 전통사상총서를 영역화한 사례는 있지만, 근대 불교 문헌을 종단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영역사업을 펼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불교의 근대 대표저작들을 번역해 세계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예산을 지원 받아 이뤄진다. 올해에는 1억여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영역화 사업에 대해 조계종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근대 불교문헌 영역 대상은 효봉 · 만암 · 경허 · 만해 스님 등의 법어집과 저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6월 초 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 방향을 결정하고 6월 안에 영역화 편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대상 저서 목록을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근대 선지식 저서 · 번역물 등**
**영역화해 세계에 전파 목적**
**국고 지원… 교육원 업무 진행**
**올해에는 번역 대상 조사 작업**

이어 "외국인들이 달라이 라마, 틱낫한 스님에 열광하는 것은 그들의 수행법이 철저히 영역화돼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한국에도 외국 유명 스님 못지않는 선지식들이 많다. 이번 영역화 사업을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 학자들의 기초 연구 자료 제공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임진왜란 당시 약탈됐다가 421년만에 환지본처한 '석가영산회도'. 조선 전기의 영산회도는 국내 7~8점에 불과할 정도로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국보급 '석가영산회도' 日서 환수

## 상궁 시주 왕실 발원 추정…조선 초기 영산회도 드물어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약탈 당한 국보급 조선불화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조선 선조 25년(1592년) 조성된 불화 '석가영산회도(釋迦靈山會圖)'가 421년만에 국내로 환수됐다.

영산회도는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으로 조선 전기로 연대가 규명된 영산회도는 7~8점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석가영산회도는 불화 중 화기(畵記 · 조성기록)가 명확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시주자에 왕실 상궁 명호가 있어 조선 초기 왕실 발원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석가영산회도 환수는 일본 교토(京都)의 한 사찰이 소장하고 있던 작품을 주승진 '고미술연구소 무유헌' 대표가 설득해 매입을 성사시켰다. 주 대표는 2년 넘게 정성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수된 석가영산회도를 연구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만력(萬曆) 20년 임진년 원월(元月 · 1월)에 백족산(百足山) 석남사(石楠寺)에서 완성했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3개월 전에 불화가 그려진 것"이라며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일본으로 강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명예교수는 "조선 초기 영산회도는 희귀할뿐더러 시주자에 왕실 상궁이 있는 것을 보아 왕실 발원본으로 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당시 영산회도 중 사료로서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는 데다 예술적으로도 독특한 매력이 풍부해 최소 보물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다"고 평했다.

노덕현 기자

## 943호 INDEX


종합 2·3
진각종 29대 통리원장 기자회견
"부석사 불상, 환지본처가 해답"
아름다운동행 아프리카 학교 건립
이영근 인천공항사장 퇴진운동
조계종 환경위 밀양송전탑 회견

시방세계 5
청소년교화연합회 예술경연대회

학술 · 문화재 9
동아시아 약사신앙 국제학술세미나
선본사 갓바위 학술대회

테마가 있는 사찰기행 12
남양주 수종사

# 조계종, 선학원과 공식 협상 '본격화'

## 대책위 5인 협상소위 구성… 위원장 원담 스님

법인법을 놓고 선학원과 갈등 중인 조계종이 공식적 협상 기구를 구성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선학원대책위원회(위원장 성직)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선학원협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협상소위는 종책특보단장 원담 스님을 위원장으로 정념 스님, 대오 스님, 주경 스님, 일운 스님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 성직스님은 지난 5월 21일 열린 선학원과의 비공식 면담에 대해 "'법인법'과 관련한 여러 논의에 대해 협상팀을 구성해 정식으로 협상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법보 스님은 "적지 않는 법인 관련 스님들이 '법인 뺏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던데, 법인법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담 스님은 "총무원이 법인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준비 중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가 있어도 이해가 부족하면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경스님은 "법인법은 권한쟁의나 이익충돌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협상소위는 법인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측 의견을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등 스님도 "종단 내부 결속을 위해 조계종의 선학원 분원장 임명과 이사 추천이 필요하다"며 "이사장이 추천한 분원장을 원장이 임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학원대책위는 이날 소위원회에 선학원과 관련한 논의를 위임하고,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본 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신중일 기자

# 종관위 정관 개정안 동국대이사회 부결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정련)는 5월 31일 제277차 이사회를 열고 임원 선임 시 조계종 재적 승려만 조계종에서 2배수로 추천받도록 결정했다. 모든 이사 및 감사를 조계종에서 2배수로 추천 받도록 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정관 개정안을 부결한 것이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정관 개정안에서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3항 중 '조계종 재적승려 이사 및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에서 '조계종 재적승려'를 삭제하고 '개방이사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바 있다.

하지만 투표결과 찬성 7표, 반대 4표로 정관 변경은 정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에 부결됐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감사로 혜오 스님과 제정 스님을 선출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새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 사부대중 여러분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불서 1932권, 일선 사찰 및 불자에게 법공양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이 마장초등학교 1학년 이수인 양에게 어린이 불교 도서를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과 본지는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새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전국 각지의 사부대중이 캠페인에 동참해 적지 않은 후원금이 모연됐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법회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일선 사찰을 비롯해 주위 어린이들에게 불서를 나눠주고 싶다는 산간 오지 사찰, 자신의 아이에게 불교 서적을 선물하고 싶다는 불자 분들에게 법공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포된 어린이 불교 도서는 〈나도 부처님 될래요(불교시대사)〉, 〈잠자리에서 아이와 함께 읽는 불교동화18(불광출판사)〉, 〈지혜가 쑥쑥 자라는 명상동화20(불광출판사)〉, 〈만화 백유경(비움과 소통)〉, 〈만화 인물불교사(솔바람)〉 등 5종 1932권입니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본지의 캠페인을 통해 안동청소년문화센터에 도서기금 300만원을 지정 기탁해주셨습니다.

어린이는 한국불교의 미래입니다.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사부대중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圓 社團法人 大韓佛教 統合禪教宗 元老 聖雲堂 靑松 大宗師 寂

사단법인 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원로 성운당 청송 대종사님께서 5월 29일 새벽 3시 45분경에 입적하셨습니다. 본종단 전종도는 큰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화합하고, 수행정진하여 내실을 다지고 전종도가 합심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정상에 우뚝 서는 종단을 만들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49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49재 일정

◆ 초재 : 6월 04일 (음력 4월 26일) 화요일
◆ 2 재 : 6월 11일 (음력 5월 03일) 화요일
◆ 3 재 : 6월 18일 (음력 5월 10일) 화요일
◆ 4 재 : 6월 25일 (음력 5월 17일) 화요일
◆ 5 재 : 7월 02일 (음력 5월 24일) 화요일
◆ 6 재 : 7월 09일 (음력 6월 02일) 화요일
◆ 7 재 : 7월 16일 (음력 6월 09일) 화요일
◆ 장소 : 울산 중구 태화동 321-1 청송사

※문의 :052)247-7280(청송사) / 041)566-2277 ~ 2278(장의위원회)

증 명 : 법해 도기, 해월 용암
고 문 : 법운, 명종, 법헌
장의위원장 : 화엄 장의부위원장 : 동봉, 성각, 삼주, 도광, 해동, 진공, 보월, 지우, 법승
장 의 위 원 : 지산, 일성, 지현, 정일, 정원, 자광, 동해, 재성, 보각, 도천, 청호, 완경
집행위원장 : 상원 집행부위원장 : 광은, 법광
집 행 위 원 : 지운, 법연, 일운, 자각, 지산, 대성, 령신, 능관, 문상철, 김유광, 광명심, 도현, 연수, 성일, 보현, 동덕, 정일, 법산, 정견, 자각, 도원, 서광, 각원, 도심, 강명, 도정, 보각, 철우, 덕문, 심오, 경오, 수영, 법경, 의해, 미산, 진성, 지공, 보성, 금비, 청정심, 지원, 정행심, 연화심, 도심, 지혜, 일월
은 상 좌 : 보적, 천웅, 법은, 심오 유 발 상 좌 : 청정심
속 가 상 좌 : 유상진, 황규철, 강차완, 송민철, 유분필, 이명자, 김상선, 김선희, 황원준, 서민선, 박경자, 고의택, 신도회장 박선옥, 신도 일동

社團法人 大韓佛教 統合禪教宗 宗團葬 葬儀委員會